

보도시점 : 2023. 12. 24.(일) 11:00 이후(12. 25.(월) 조간) / 배포 : 2023. 12. 22.(금)

[2023년 국토교통부 정책 돋보기]

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

- 전년 대비 매출 2.6%, 종사자 수 1.2%, 사업체 수 1.1% 성장

- 국토교통부는 '23년 공간정보산업* 통계조사 결과('22년 기준)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 123억 원, 종사자 수는 72,486명, 사업체 수는 5,871개라고 발표**했다.
 - *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, 지적도, 3차원 지도 등을 생산·가공·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·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 - ** 국토교통부 통계누리(<https://stat.molit.go.kr>), 공간정보산업진흥원(www.spacen.or.kr), 통계청 국가통계포털(<https://kosis.kr>)에서 확인 가능
-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, 학계·연구소 등에서 연구·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-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,742억 원(2.6%), 종사자 수 850명(1.2%), 사업체 수 64개 사(1.1%)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,
 - '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천7백억 원(7.3%), 종사자 수 약 2천9백 명(5.4%), 사업체 수 약 1백4십 개(2.7%)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 - 이번 조사에서는 '교육 서비스업'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어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,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'제조업(-0.7%, -1.7%)'에서 소폭 하락한 대신, '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(3.1%, 2.9%)', '협회 및 단체(9.9%, 12.1%)' 업종에서 융·복합 분야 사업 영역 확대에 의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“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, 자율주행, 인공지능,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핵심기반”이라고 강조하며,
- “앞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융·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	책임자	과 장	김유진 (044-201-3469)
		담당자	사무관	배대호 (044-201-4864)
			주무관	이윤정 (044-201-3475)

